



최근의 글로벌 통화절하 경쟁 및 향후 전망

최근 글로벌 통화절하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재연 등으로 인해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음. 향후 통화절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임.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브라질 재무장관의 발언과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을 배경으로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경쟁적 통화절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음.
 - 9월 27일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(Guido Mantega) 재무장관은 국제통화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제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의 직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환율방어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공언함.
 - 9월 29일 미국 하원은 중간선거(11월 2일)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등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‘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(The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)’을 가결하였음.
 - * 현재로서는 동 법안이 상원 가결 및 대통령 서명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, G20 정상회의(11월 11~12일)를 앞둔 시점이라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지난 2008년부터 미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해 왔던 중국은 위안화가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올해 6월중 환율변동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복귀하였으나 환율제도 변경 이후에도 미 달러화에 대한 절상 폭은 2% 정도에 그치고 있음.
 - 그동안 일본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공급 확대를 도모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을 지난 9월 15일 단행하였음.
 - * 일본은행(BOJ)은 지난 10월 5일 정례금융정책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(0.1%→0.0~0.1%), 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기금 창설 등 추가 금융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음.
 - 미국은 경기회복 둔화와 높은 실업상태에 대응하여 연준의 제로금리 및 대차대조표정책(balance sheet policy)에 의한 유동성공급 확대를 통해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며 따라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.
 - 최근 들어서는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여타 EU 회원국들도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의



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- 또한 아시아나 중남미 지역 등의 신흥시장국들도 자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 - 대만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대만 달러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은 2% 미만에 그치고 있음.
 - 최근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해 자국통화가 지난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물론,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싱가포르 등도 강도 높은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 - 중남미에서는 브라질·멕시코·콜롬비아·페루·아르헨티나 등이, 유럽에서는 러시아·폴란드·이스라엘 등이,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등이 이미 외환시장개입을 단행하였거나 단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 - 특히 브라질은 외환시장개입과 더불어 지난 10월 4일 레알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채권투자에 부과했던 금융거래세(financial transaction tax)를 2%에서 4%로 전격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함(〈주간금융브리프(제18권 42호)〉 참조).
-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자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교역대상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공핍화정책(beggar-thy-neighbor policy)은 연쇄적인 통화절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재연 및 통상마찰 심화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음.
 - 지난 1930년대 뉴욕증시의 폭락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대공황도 보복관세나 수입반대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.
 - * 1930년대에 제정된 스무트-할리관세법(Smoot-Hawley Tariff Act)은 관세율을 과거 100년 이래 최고치인 59%로 인상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연쇄효과를 일으켰고, 1929~1932년간 국제무역은 63%나 감소하였음.
- 최근의 이러한 각국의 환율정책은 아직은 자국 통화의 절상속도 조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본격적인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함.
 - 그러나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IMF, 세계은행, G20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논의, 제2의 플라자합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평가임.
 - * 플라자합의(Plaza Accord)는 지난 1985년 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미 달러화 강세 시정을 결의한 조치인데, 제2의 플라자합의는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나 유럽지역의 구조개혁 등 보다 정교한 형태의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.
 - 특히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실시간으로 자본유입 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 KIF